

K-웹툰 산업의 성장, 저작권 보호 기술의 전략적 활용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기술팀
문수연
2025. 11. 20.

보고서 요약

한국 웹툰 산업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성장하며, 국내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K-콘텐츠 대표 분야로 자리 잡았다. 2023년 기준 국내 웹툰 산업 규모는 약 2조 1,890억 원으로 추정되며, 네이버 웹툰·카카오 페이지·리디 등 주요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다. 아울러 웹툰 산업의 성장에 따라 드라마화·이모티콘화·굿즈화 등 2차 콘텐츠 확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웹툰 원작 콘텐츠의 부가가치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웹툰 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여전히 불법 복제와 저작권 침해 확대라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 전반에서는 AI 기반 탐지 기술, 콘텐츠 지문 기술, 디지털 워터마킹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 중심의 저작권 보호 체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네이버 웹툰의 튜레이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불법 유통 대응 전담팀 신설, 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만화가협회의 공동 협약 체결이 있다. 이러한 협력은 저작권 보호의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향후 웹툰 산업은 저작권 보호 기술과 창작 역량이 함께 발전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더욱 견고히 다져갈 것으로 기대된다.

1. 국내 웹툰 시장 현황

웹툰(Webtoon)은 '웹(Web)'과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통해 연재·유통되는 디지털 만화를 의미한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웹툰은 한국을 대표하는 창작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기존 만화의 형식을 넘어, 모바일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사(敍事) 포맷으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K-콘텐츠'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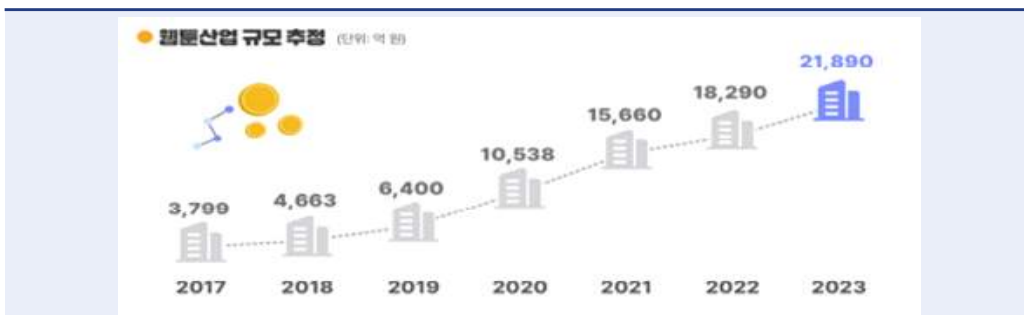
스마트폰 보급과 구독형 플랫폼의 확산은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접근성과 참여의 폭을 넓혀 주었고, 이는 웹툰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졌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웹툰 산업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며, 단순한 온라인 만화 연재를 넘어 글로벌 플랫폼과 스토리 IP(지식재산) 중심의 종합 콘텐츠 생태계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웹툰이 더 이상 국내 시장에 머물지 않고, 세계 콘텐츠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문화산업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흐름을 바탕으로, 국내 웹툰 산업의 규모와 성장 추세를 보여주는 주요 통계 지표를 통해 국내 시장의 확산과 발전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내 웹툰 산업 규모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웹툰 산업 규모는 웹툰 플랫폼¹⁾ 매출과 웹툰 CP사²⁾의 매출을 합산하여 산정된다.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웹툰 플랫폼의 총 매출 추정액은 약 1조 4,094억 원, 웹툰 CP사의 총매출 추정액은 약 7,79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3년 국내 웹툰 산업의 전체 매출 규모는 약 2조 1,890억 원으로 추정되며, 2017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 국내 웹툰 산업 규모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

- 1) 웹툰 유통을 담당하는 상위 사업체를 뜻함(ex.네이버 웹툰). 단순 유통을 하는 플랫폼과 스튜디오 설립, 작가 직접 계약을 통한 제작과 투자를 통해 작품을 유치하는 등 웹툰 사업 전 분야에 걸쳐 참여함.
- 2) 콘텐츠 제공자(CP, Content Provider)로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사업체 전체를 의미함.
(본 보고서에서는 플랫폼을 제외한 모든 웹툰 사업체를 CP사로 분류하여 표기함)

2) 국내 웹툰 주요 기업 현황

국내 웹툰 산업의 성장은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네이버 웹툰(Naver Webtoon)**, **카카오 페이지(Kakao Page,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서비스)**, **리디(RIDI)**는 국내 시장을 대표하는 3대 웹툰 기업으로, 각각의 독자적인 서비스 전략과 콘텐츠 운영 방식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제시해 왔다.

이들은 국내 대표 웹툰 플랫폼으로서 시장 점유율, 콘텐츠 경쟁력, 글로벌 진출 전략 등에서 각기 다른 강점을 발휘하며 웹툰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웹툰 연재 플랫폼을 넘어, IP 기반의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 국내 시장을 대표하는 3대 웹툰 기업



※ 출처: 네이버 웹툰, 카카오 페이지, 리디 공식 사이트

네이버 웹툰은 2004년 네이버의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해 현재는 글로벌 시장을 대표하는 웹툰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1억 8,000만 명에 달하며³⁾, 2025년 2분기에는 전년 대비 8.5% 증가한 약 4,88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⁴⁾

한편 **카카오 페이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약 2,4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해당 연도 국내 도서 앱 가운데 매출 1위를 차지했다.⁵⁾ 이진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일 거래액 10억 원 돌파는 오리지널 웹툰·웹소설 작품이 캠페인의 중심이 된 결과이며, 그동안 카카오 페이지가 만들어온 축적된 IP 체인의 힘이 반영된 성과”라고 밝혔다.⁶⁾

또한 **리디**는 2024년 매출 2,354억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회사 측은 이번 실적이 글로벌 사업 확장과 국내 수익성 강화 전략의 결실이라 밝혔다.⁷⁾

3) 포춘코리아 뉴스, “1.8억명이 보는 ‘네이버 웹툰’ 스토리테크 통했다”, 2022.05.03.

4) 네이트 뉴스, “네이버 웹툰엔터테인먼트, 2분기 매출 4889억원…전년 대비 8.5% 증가”, 2025.08.13.

5) 연합뉴스, “카카오 페이지 최근 2년 앱매출 2천400억원…국내 도서 앱 1위”, 2024.05.30.

6) 한국경제 테크뉴스, “카카오 페이지, 일거래액 10억 돌파…'웹툰·웹소설의 힘'”, 2019.09.18.

7) 리디, “리디, 2024년 매출 2,354억원 달성… 역대 최대 실적”, 2025.04.03.

3) 해외 진출 현황⁸⁾

웹툰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출 현황 조사 결과, 해외로 콘텐츠를 수출하는 업체의 비율은 46.5%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출 기업들의 규모를 살펴보면, '10만 달러(원화 약 1억 4,740만 원)⁹⁾ 미만' 구간이 7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업체 전체의 평균 수출액은 약 293만 달러(원화 약 43억 1,882만 원)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로 수출을 시작하고 있으나, 일부 상위 기업이 높은 수출액을 견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이 40.3%의 비중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북미(19.7%), 중화권(15.6%), 동남아시아(1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이 여전히 국내 웹툰의 주요 해외 시장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북미·중화권·동남아 지역에서도 점진적인 수요 확대가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해외 진출 현황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

4) 웹툰 산업 성장에 따른 2차 콘텐츠 확장 사례

웹툰 산업 성장과 기술 발전에 따라, 웹툰은 단순한 온라인 연재 콘텐츠를 넘어 드라마·이모티콘·굿즈 등 다양한 형태의 2차 콘텐츠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웹툰이 가진 스토리 IP의 확장성과 콘텐츠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대표적인 2차 콘텐츠 확장 사례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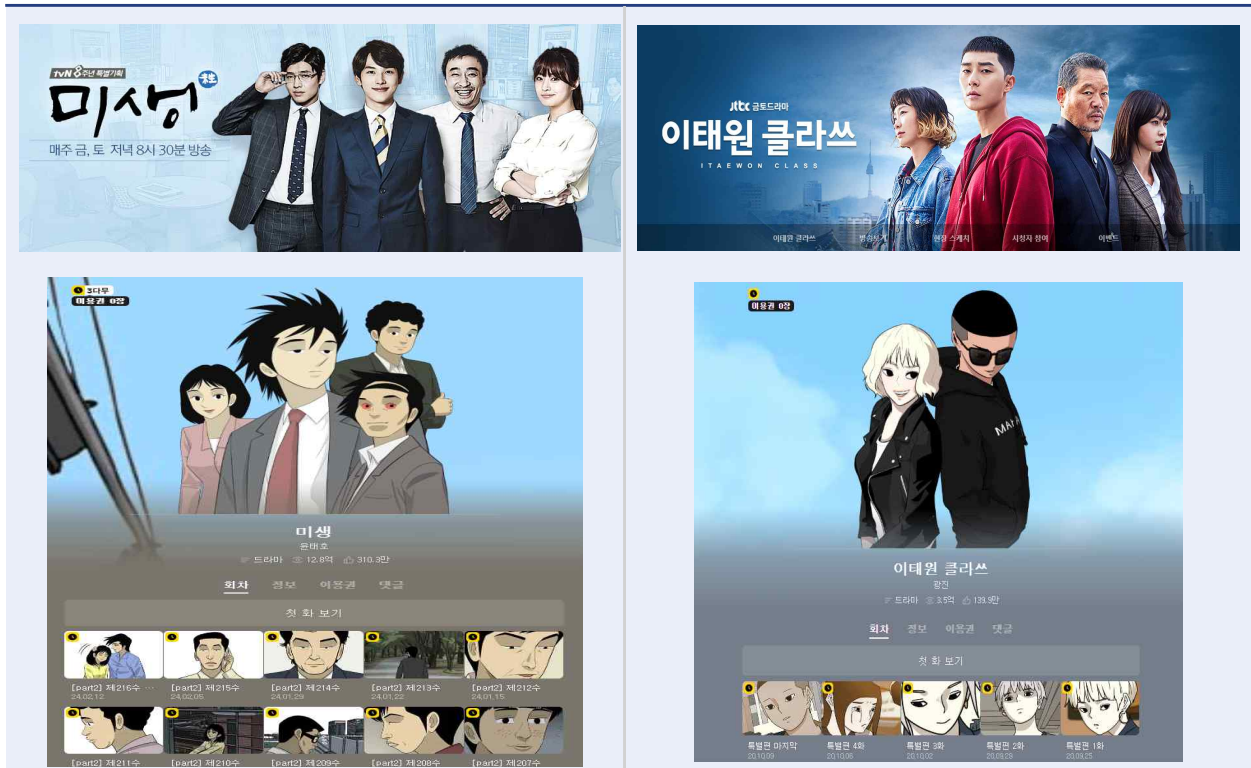
8)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 2024.12.30.

9) 해당 보고서 등록일 2024.12.30. 기준의 하나은행 환율 최초 매매 기준율을 적용. 해당 목차 이하 동일.

o 웹툰, 드라마로 다시 태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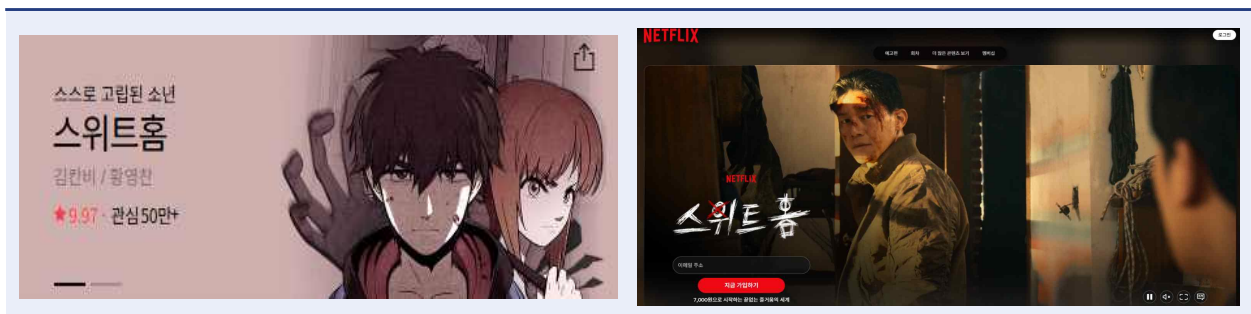
가장 대표적인 확장 형태는 **드라마화(영상화)**이다. 웹툰은 서사 구조가 탄탄하고 캐릭터 중심의 이야기 전개가 뚜렷해 영상 콘텐츠로의 전환이 용이하며, OTT와 방송 플랫폼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생', '이태원 클라쓰', '스위트홈'은 원작 웹툰의 인기와 완성도 높은 서사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사례다. 이러한 드라마화는 웹툰이 단순한 원작 콘텐츠를 넘어 영상 산업의 주요 원천 공급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 드라마화된 사례: '미생', '이태원 클라쓰'



※출처: 네이버 웹툰, tvN, JTBC 공식 홈페이지

| 드라마화된 사례: '스위트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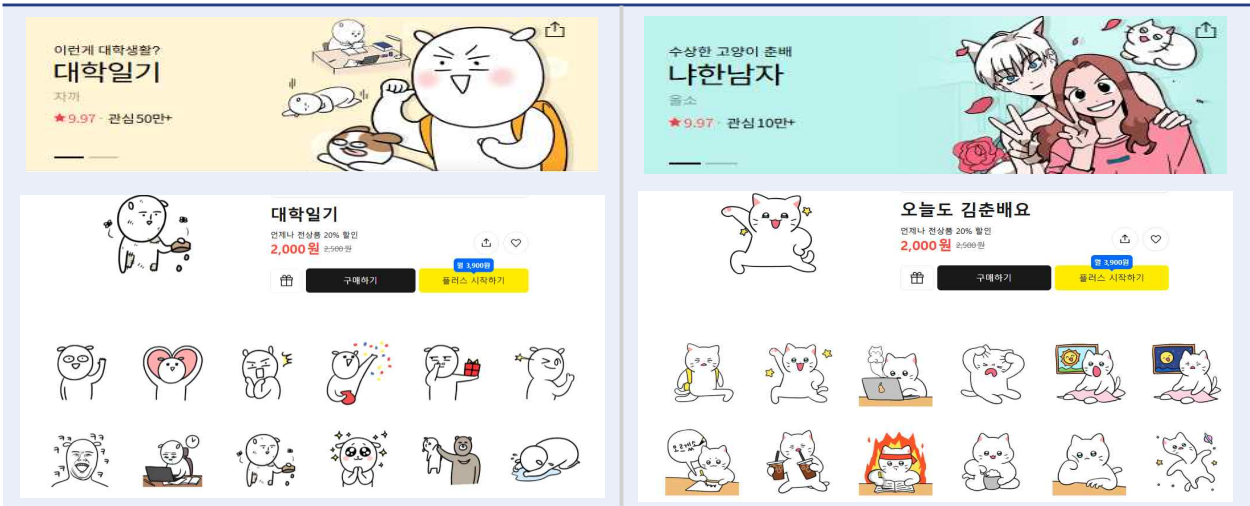


※ 출처: 네이버 웹툰, NETFLIX 공식 홈페이지

o 웹툰의 매력, 이모티콘으로 재탄생

웹툰 캐릭터의 개성과 감정 표현은 이모티콘 콘텐츠로의 확장성이 높다. 네이버 웹툰의 '대학일기', '냐한남자'는 대표적인 이모티콘화 사례로, 웹툰 속 캐릭터의 표정과 대사를 활용하여 메신저 대화에서 사용하는 표현 콘텐츠로 재탄생하였다. 이모티콘화는 캐릭터의 친밀도를 높이고, 웹툰의 브랜드 인지도와 팬덤 소비를 동시에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이모티콘화 된 사례: '대학일기', '냐한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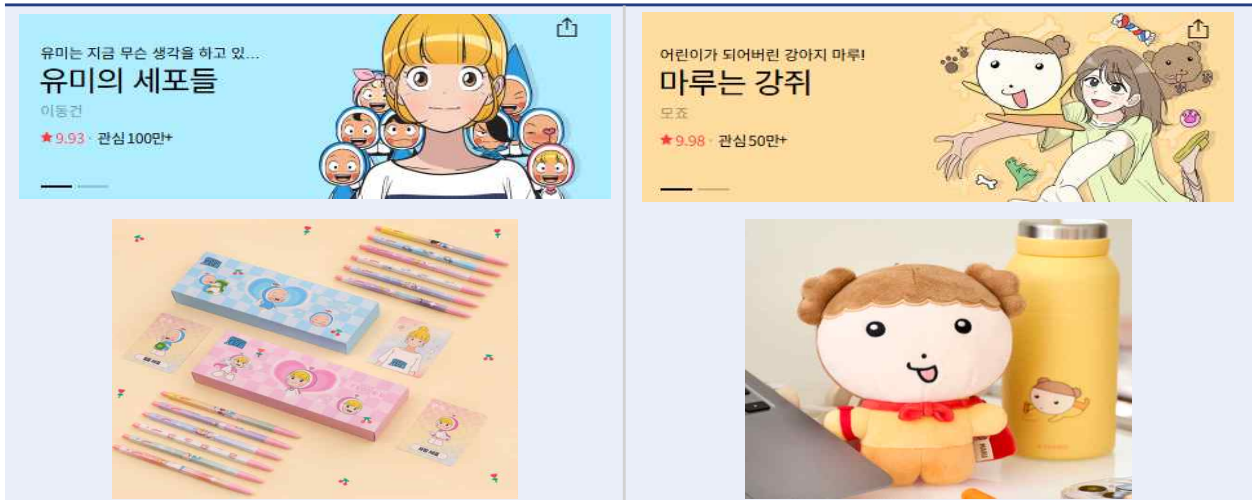


※출처: 네이버 웹툰, 카카오톡 이모티콘샵 공식 홈페이지

o 웹툰의 인기, 굿즈로 확장되는 세계관

웹툰의 캐릭터·장면·대사를 활용한 굿즈화 사업은 웹툰 산업의 주요 수익 모델로 성장하고 있다. '유미의 세포들', '마루는 강쥐' 등의 작품은 피규어, 문구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형태로 상품화 되어 국내외 팬덤을 중심으로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굿즈화는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 웹툰 IP와 팬덤 기반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 굿즈화 된 사례: '유미의 세포들', '마루는 강쥐'



※출처: 네이버 웹툰, 네이버 웹툰 프렌즈 스토어 공식 홈페이지

2. 웹툰에서 적용되는 저작권 보호 기술

웹툰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서 웹툰 사업체 중 24.6%가 저작권 침해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웹툰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는 주요 어려움으로 불법 복제 사이트(36.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향후 가장 필요한 지원 항목에서도 불법 복제 사이트 규제(43.8%)가 1순위로 꼽혔다.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액은 2023년 기준 약 4,465억원으로, 전체 산업 규모의 20.4%에 달하는 수준이다. 불법 복제 문제는 이제 관리 차원의 불편을 넘어, 웹툰 산업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⁰⁾

저작권 침해는 국내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4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조사' 결과, 해외 불법 유통 콘텐츠의 71.6%가 웹툰으로 확인되며 웹툰이 한류 콘텐츠 중 가장 심각한 불법 복제 대상으로 나타났다.¹¹⁾

웹툰은 이미지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라는 특성상 복제·캡처·재게시가 용이한 유형으로, 저작권 침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웹툰 산업 전반에서는 다양한 기술 기반의 저작권 보호 대응 체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아래 표는 웹툰에서 적용되는 주요 저작권 보호 기술의 개요를 정리한 것이다.

| 저작권 보호 기술 목록표

구분	기술 개요	주요 특징	핵심 역할
AI 기반 불법 복제 탐지 기술	AI가 웹 상의 불법 웹툰을 자동 탐색·식별하는 기술	- 이미지 변형된 복제물도 탐지 가능 - 실시간 자동 모니터링	불법 복제물 조기 탐지 및 차단
콘텐츠 지문 기술	웹툰의 고유 지문값을 생성해 유사 콘텐츠를 자동 식별	- 콘텐츠 일부 편집·변형에도 탐지 가능 - 대량 콘텐츠 관리에 효율적	유사 콘텐츠의 자동 식별 및 중복 차단
디지털 워터마킹	웹툰 이미지 내에 저작권자 정보를 삽입해 출처를 추적	- 변형·압축 후에도 정보 유지 - 정품 인증 및 진위 검증 가능 - 사후 적발·법적 증거 확보에 활용	불법 유통 발생 시 출처 추적 및 증거 확보

10)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

11) 연합뉴스, "불법 K-콘텐츠 10건 중 7건은 웹툰...업계 "처벌 수위 높여야"", 2025.06.14.

1) AI 기반 불법 복제 탐지 기술

AI 기반 불법 복제 탐지 기술은 인공지능(AI)과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웹상에서 불법으로 복제·유통되는 웹툰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식별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웹사이트, SNS, 해외 불법 유통 플랫폼 등에서 웹툰 이미지를 자동 크롤링하고, 원본 데이터와 비교·분석하여 침해 여부를 판별한다. 특히 최근의 AI 이미지 분석 기술은 단순한 복제뿐 아니라 이미지가 회전·확대·축소·색상 변경 등의 변형을 겪더라도 중복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¹²⁾

2) 콘텐츠 지문 기술(Content Fingerprinting / DNA)

콘텐츠 지문 기술은 디지털 콘텐츠의 고유한 특징 값(예: 해시값이나 특징 벡터)을 추출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기술이다. 예컨대, 웹툰 이미지나 컷 단위로 특징 벡터를 생성하여 저장한 뒤, 다른 플랫폼이나 사이트에 동일·유사 이미지가 업로드되면 이를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부분 편집·크롭·해상도 변경 등 이미지 변형이 일어났더라도 탐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대형 콘텐츠 플랫폼 환경에서 불법 복제물의 재게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유리하다.¹³⁾

3)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

디지털 워터마킹은 웹툰 이미지 안에 저작권자·작품 ID 등의 정보를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게 삽입하여 불법 유통 시 출처 추적 및 진위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정보는 이미지가 일부 편집되거나 압축되더라도 유지되어 유출 경로나 최초 배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눈에 보이는 워터마크는 범죄 예방에 유용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는 저작권 저작물의 도용을 입증하고 온라인에서 사용 내역을 추적하는 데 유용하다.¹⁴⁾

이상의 세 가지 기술은 웹툰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각각 '탐지-식별-추적'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통해 웹툰 저작권 보호의 기술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결합은 단순한 사후 단속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저작권 보호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12) Science Direct, "Effective near-duplicate image detection using perceptual hashing and deep learning", 2025.07.

13) arxiv, "Digital Fingerprinting on Multimedia: A Survey", 2024.08.26.

14) WIPO, "How to Obtain Copyright Protection?"

3. 웹툰 분야의 주요 기술 적용 사례

앞서 살펴본 다양한 저작권 보호 기술은 현재 웹툰 산업 전반에서 불법 복제 대응과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업계와 관련 기관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대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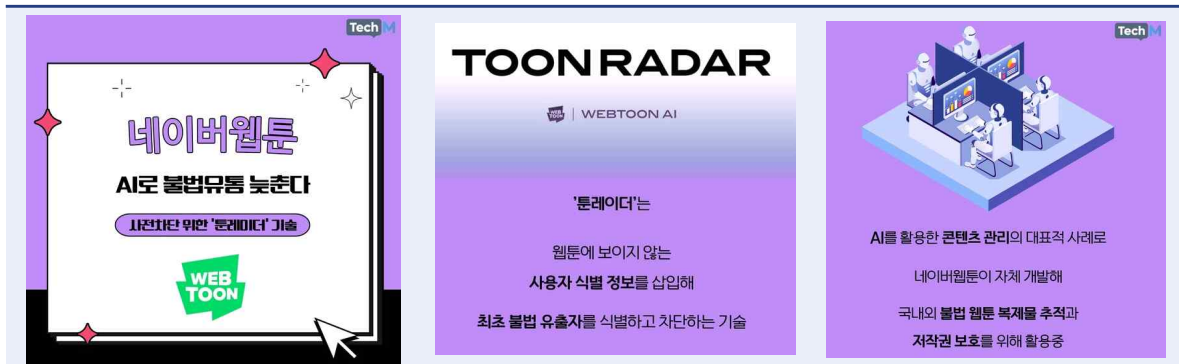
1) 네이버 웹툰

o 툰레이더 기술(Toon Radar)¹⁵⁾

네이버 웹툰은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자체 개발한 툰레이더 기술을 2017년부터 국내외 불법 복제물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 툰레이더는 웹툰 내에 삽입된 사용자 식별 정보를 기반으로 불법 이용자를 탐지하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지속적인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에는 컴퓨터 비전 기반의 인공지능을 적용한 툰레이더 AI로 업그레이드해 이미지 추적 효율을 높였으며, 2019년에는 웹툰 불법 유통 예측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등 현재까지도 기능 개선과 기술 고도화를 이어가고 있다.

툰레이더 도입 이후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는 정식 플랫폼에 게시된 최신 유료 회차가 불법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점이다. 실시간으로 불법 웹툰 업로드를 모니터링하는 툰레이더의 기술적 도움 덕분에 네이버 웹툰은 ‘밤토끼’, ‘어른아이 닷컴’ 등 국내 대표 웹툰 불법 유포 사이트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툰레이더가 주요 작품의 불법 유통을 지연시켜 보호한 저작물의 권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최소 2,000억 원으로 추정될 만큼 큰 도움을 가져다주었다.

| 불법 웹툰 유통 차단 숨은 조력자, 네이버 웹툰의 툰레이더



※ 출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카드뉴스] 네이버 웹툰, AI기술 툰레이더 ‘불법 유통 늦춘다’”, 2023.07.14.

15) 한국저작권보호원 네이버 블로그, “‘툰레이더’ AI 기술로 불법 유통 차단- 서충현 네이버 웹툰 저작권보호기술팀장”, 2023.05.24.

o ACE·COA 기반의 글로벌 저작권 보호 네트워크 참여 확대

네이버 웹툰은 한국 기업 최초이자 유일한 웹툰·웹소설 플랫폼으로 **글로벌 저작권 보호 전문 조직인 ACE(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¹⁶⁾에 회원사로 이름을 올렸다. 앞으로 ACE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불법 콘텐츠 대응 관련 전문 지식과 자원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불법 사이트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 밝혔다.¹⁷⁾

또한 2020년부터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pyright Overseas Promotion Association, COA)** 회원으로 가입하여 국내외 글로벌 웹툰 불법 침해 대응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의 모니터링 벤더를 통해 침해 대응, 악성 매체 집중 대응, 불법 사이트 내 배너 광고 차단 캠페인, 해외 저작권 보호 관련 실태조사, 국내외 저작권 교류 협력 체계 구축 지원 등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¹⁸⁾

| 글로벌 저작권 보호 전문조직 ACE

| 사단법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



※ 출처: ACE, COA 각 공식 홈페이지

이러한 노력은 네이버 웹툰이 글로벌 저작권 보호 생태계에서 책임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 협력 확대를 통해 웹툰 산업 전반의 저작권 보호 역량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시장 환경 조성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업계 최초로 **글로벌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불법 유통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특히 불법 유통 대응 백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주요 단속 전략과 성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작권 보호 활동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16) 2017년 설립된 미국영화협회(MPA) 산하의 저작권 보호 전문조직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 대응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 중 하나임. 아마존, 넷플릭스,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50개 이상의 주요 글로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음.

17) IT BizNews, "네이버웹툰, 美 저작권 보호 전문조직 'ACE' 가입...韓 웹툰·웹소설 플랫폼 최초", 2025.03.27.

18) 한국저작권보호원 네이버 블로그, "툰레이더' AI 기술로 불법 유통 차단-서충현 네이버웹툰 저작권보호기술팀장", 2023.05.24.

|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불법 유통 대응팀(P.CoK)



※ 출처: KAKAO ENTERTAINMENT, “카카오엔터 불법 유통 대응 전담팀, ‘4차 불법 유통 대응 백서’ 발간!”, 2024.02.21. KAKAO WEBTOON,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함께하는 웹툰 불법 유통 근절 캠페인”

2024년에는 구글의 IP 보호 프로그램인 TCRP(Trusted Copyright Removal Program)¹⁹⁾의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되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 침해 대응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음을 입증했다.²⁰⁾ 또한 ‘내돈내투’ 캠페인과 같은 참여형 SNS 이벤트를 통해 불법 유통 근절에 대한 이용자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이용자와 함께하는 자율적 저작권 보호 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3) 웹툰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연대²¹⁾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만화가협회가 웹툰 불법 유통 근절 및 웹툰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이용자 대상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공동 콘텐츠 제작·배포·홍보 추진, ▲국내외 웹툰 불법 이용 실태조사 협력, ▲웹툰 저작권 산업 진흥을 위한 상호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협력 선언을 넘어,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세 기관이 보유한 저작권 보호 인프라, 산업 지원 역량, 창작자 네트워크를 연계함으로써, 그동안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대응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 유관기관 공동 업무협약식



※ 출처: 연합매일신문, “한국콘텐츠진흥원, 웹툰 저작권 보호 위한 유관기관 협약 체결”, 2023.03.10.

| 2023 웹툰 저작권 보호 공동 캠페인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웹툰 불법 유통 근절 및 건전한 소비 문화 확산 앞장” 콘진원, 2023 웹툰 저작권 보호 공동 캠페인 성료”, 2023.12.26.

19) TCRP(Trusted Copyright Removal Program)는 구글이 운영하는 IP 보호 프로그램으로, 불법 유통 데이터를 구글에 지속적으로 공급한 기업에 한해 TCRP 파트너 자격을 부여함.

20) MBC뉴스, “카카오, 엔터 기업 최초로 '구글 TCRP 공식 파트너사' 선정[공식]”, 2024.07.16.

21) 한국저작권보호원, “웹툰 불법 이용은 이제 그만! 세 개 기관이 뭉쳤다”, 2023.03.10.

이외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웹툰 불법 유통 근절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2023 웹툰 저작권 보호 공동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해당 캠페인에서는 웹툰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릴레이 웹툰과 공모전을 진행하고, 국내외 인식 확산을 위해 배너 광고 게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²²⁾

이러한 사례들은 웹툰 산업이 기술 중심의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며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협력은 불법 유통을 억제하고 합법적 유통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 가능한 웹툰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곧 기술 중심의 저작권 보호 시대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4. 시사점

웹툰 산업의 급성장 속에서 저작권 보호 기술은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필수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이러한 산업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관련 R&D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디알엠인사이드(DRM Inside)²³⁾에서 진행한 R&D 과제가 2023 문체부 우수 사례로 선정되고 이미지 식별 기술인 imageID²⁴⁾는 불법 유통 식별과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활용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²⁵⁾

앞으로 웹툰 산업은 저작권 보호 기술과 창작 기술이 함께 발전하며, 창작자·플랫폼·이용자가 공존하는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로 나아갈 것이다. 무엇보다 이용자 개개인이 창작물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당한 이용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 웹툰 산업의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22) 한국콘텐츠진흥원, “웹툰 불법 유통 근절 및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 앞장’ 콘진원, 2023 웹툰 저작권 보호 공동 캠페인 성료”, 2023.12.26.

23) 디알엠 인사이드(DRM Inside):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을 개발한 저작권 보호 기술 전문 기업

24) 해상도 변경, 모자이크, 잘림 등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진 이미지도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로, 불법 유통 모니터링과 이미지 자산 보호에 효과적임.

25) DRM INSIDE 공식 홈페이지, “소식, 회사소개-주요 연혁”

| 참고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 2024.12.30.
- 리디, “리디, 2024년 매출 2,354억원 달성… 역대 최대 실적”, 2025.04.03.,
https://ridicorp.com/2025/04/2024_record/
- 연합뉴스, “"카카오페이지 최근 2년 앱매출 2천400억원…국내 도서 앱 1위"”, 2024.05.30.,
<https://www.yna.co.kr/view/AKR20240530057400005>
- 한국경제 테크뉴스, “카카오페이지, 일거래액 10억 돌파…'웹툰·웹소설의 힘"”, 2019.09.1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9186371g>
- 포춘코리아 뉴스, “1.8억명이 보는 '네이버웹툰' 스토리테크 통했다”, 2022.05.03.,
<https://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88>
- 네이트 뉴스, “네이버 웹툰엔터테인먼트, 2분기 매출 4889억원…전년 대비 8.5% 증가”, 2025.08.13.,
<https://news.nate.com/view/20250813n03972>
- 연합뉴스, “불법 K-콘텐츠 10건 중 7건은 웹툰…업계 "처벌 수위 높여야"”, 2025.06.14.,
<https://www.yna.co.kr/view/AKR20250606058700005>
- Science Direct, “Effective near-duplicate image detection using perceptual hashing and deep learning”, 2025.07.,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306457325000287?utm_source
- arxiv, “Digital Fingerprinting on Multimedia: A Survey”, 2024.08.26.,
https://arxiv.org/html/2408.14155v1?utm_source
- WIPO, “How to Obtain Copyright Protection?”
<https://www.wipo.int/en/web/copyright/protection>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카드뉴스] 네이버웹툰, AI기술 튜레이더 '불법 유통 늦춘다"”, 2023.07.14.,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12243>
- 한국저작권보호원 네이버 블로그, “[C STORY가 만난 사람] '튜레이더' AI 기술로 불법 유통 차단- 서충현 네이버웹툰 저작권보호기술팀장, 2023.05.24.,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110658054>
- IT BizNews, “네이버웹툰, 美 저작권 보호 전문조직 'ACE' 가입…韓 웹툰·웹소설 플랫폼 최초”, 2025.03.27.,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065>
- KAKAO WEBTOON,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하는 웹툰 불법 유통 근절 캠페인”
<https://kwcampaign.kakaoent.com/>

| 참고자료

- MBC뉴스, “카카오, 엔터 기업 최초로 '구글 TCRP 공식 파트너사' 선정[공식]”, 2024.07.16., https://imnews.imbc.com/news/2024/enter/article/6617510_36473.html
- KAKAO ENTERTAINMENT, “카카오엔터 불법 유통 대응 전담팀, ‘4차 불법 유통 대응 백서’ 발간!”, 2024.02.21., <https://kakaotent.com/pr/detail/35>
- 한국저작권보호원, “웹툰 불법 이용은 이제 그만! 세 개 기관이 뭉쳤다!”, 2023.03.10., https://www.kcopa.or.kr/lay1/bbs/S1T12C38/F/38/view.do?article_seq=4225&cpage=5&rows=10&condition=&keyword=
- 한국콘텐츠진흥원, “‘웹툰 불법 유통 근절 및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 앞장’ 콘진원, 2023 웹툰 저작권 보호 공동 캠페인 성료”, 2023.12.26., <https://www.kocca.kr/kocca/koccanews/reportview.do?menuNo=204767&nttNo=630>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약’ 체결”, 2023.03.28., https://kiip.re.kr/ipmap/board/trend/view.do?bd_gb=&bd_cd=1&bd_item=&po_item_gb=&po_cate_l=tc_B¤tPage=30&po_no=21894
- 연합뉴스신문, “한국콘텐츠진흥원, 웹툰 저작권 보호 위한 유관기관 협약 체결”, 2023.03.10., <http://www.y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54>
- Naver 보도자료, “네이버웹툰, 국내 최초 미국영화협회 산하 저작권 보호 전문 조직 ACE 가입… 웹툰·웹소설 플랫폼 1호”, 2025.03.27., <https://www.navercorp.com/media/pressReleasesDetail?seq=32398>
- MIRAKLE AI, “웹툰 불법 유통…이젠 AI로 잡아낸다”, 2023.07.12., <https://www.mk.co.kr/news/it/10783013>
- 윤희돈, 조성환, “효과적인 웹툰 저작권 보호 방법에 관한 연구”, 2019.
- 글로벌 저작권 보호 전문조직 공식 홈페이지, <https://www.alliance4creativity.com/ko/about-us/>
- 사단법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 공식 홈페이지, <https://coa4kcontent.or.kr/index.php>
- DRM INSIDE 공식 홈페이지, <https://drminside.com/ko>